

최근 북극관련 주요 논점 및 2016 NPAC 계획

KOPRI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연구위원

주요 내용

1. 북극해 공해에서의 수산활동 제한

2. 북극해양협력 기반 구축

3. 북극협력주간 및 PAME 전문가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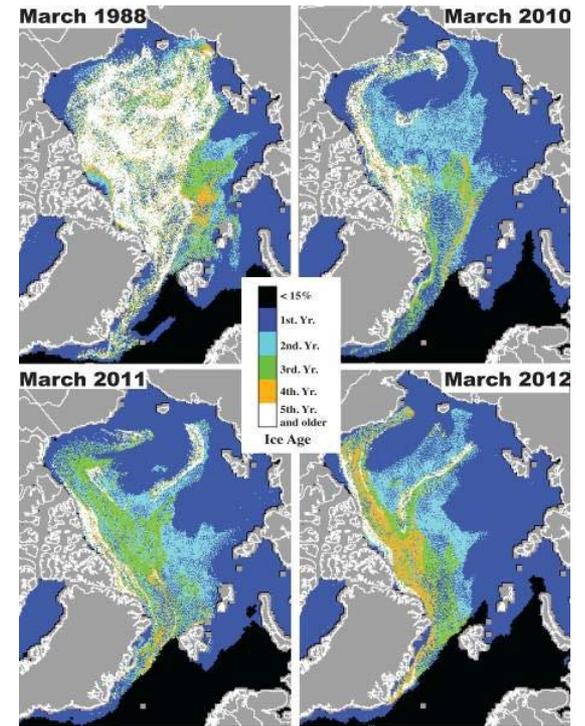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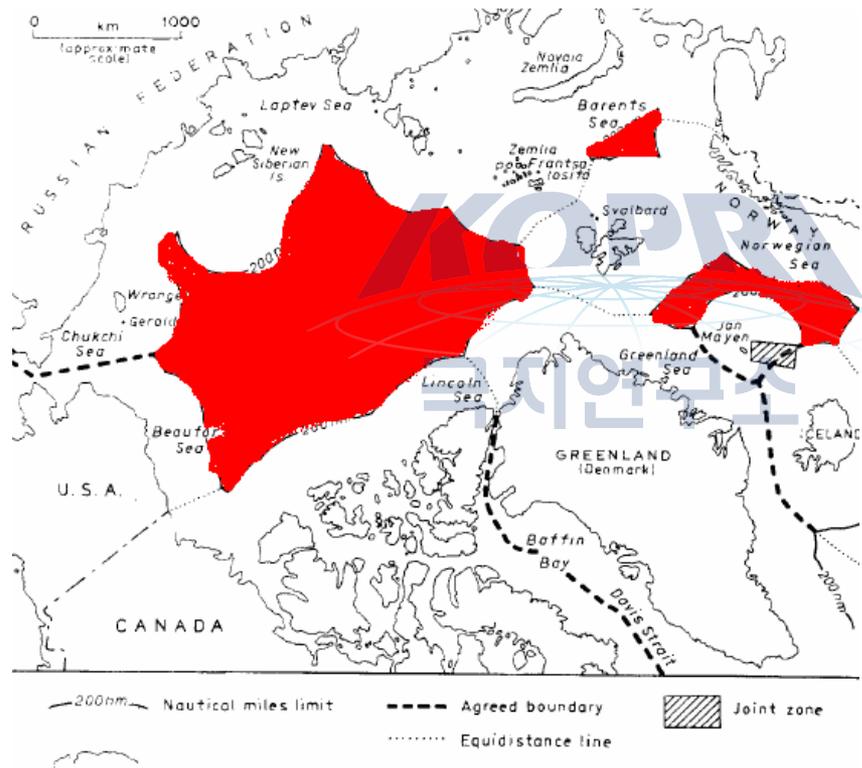
4. 2016 NPAC 계획

1. 북극해 공해에서의 수산활동 제한

❖ 주요 내용

- 북극해 공해(약 290만 제곱킬로미터)의 해양 생물 및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비규제상업어업활동 금지조치를 위한 한시적 조치 추진
- 북극해 연안 5개국(미, 캐, 러, 노, 덴) + 주요 비연안 수산국 5개국(한, 중, 일, 아이슬란드, EU) 간 협정 검토
 - 비북극이사회 의제로 새롭게 부상 중
- 해양과학연구와의 연계를 통한 실효성 확보 추진
- AC 의장국인 미국 주도로 북극이사회 밖에서 새로운 북극해 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
 - 해양장관회의, 기후장관회의, 북극에너지정상회의, 북극과학장관회의 등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수준에 준하는 고위급 협의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원주민이 포함된 전원합의체 형식의 북극이사회와 다른 형태의 주도적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1. 북극해 공해에서의 수산활동 제한



1. 북극해 공해에서의 수산활동 제한

❖ 그간의 경위

- 2008.6월 미상원, 북극해어업협정 촉구 결의 채택
 - A joint resolution directing the US to initiate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take necessary steps with other Nations to negotiate an agreement for managing migratory and transboundary fish stocks in the Arctic Ocean
- 2011, 2013, 2015 북극연안5개국(ACS) 과학자회의 개최
- 2014.2월 ACS 한시적 금지조치 합의
- 2015.7월 ACS 고위급회의 개최, 선언문 채택
 - Declaration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unregulated high seas fishing in the Central Arctic Ocean
- 2015.12월 제1차 회의개최, 미국 제안서 검토
 -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 2016.4월 제2차 회의예정

1. 북극해 공해에서의 수산활동 제한

❖ 주요 논점 및 논의제안

- 북극해 공해에 대한 새로운 한시적 어업협정 필요성
 - 유엔공해어업협정 중국 및 싱가포르 제외 18개국 비준완료
- 과학연구 확대방안, 기존 과학기구(ICES, PICES, PAG) 연계, 신규과학기구 설치여부
- ACS해역내 조치, NEAFC 중첩, 관리 및 집행, 해양경계
- 상업적(commercial), 탐사적(exploratory), 생계형(subsistence) 조업 범위 및 정의
- 지역수산기구(RFMO), 지역해프로그램(RSP) 연계 가능성
- 아국의 입장과 대응방안
 - 협정, 선언문, 양자 대응체계 등 옵션 다양화
 - 원양어업활동 추가규제 설정 대응방안
 - 지역수산기구 등 관리 틀에 대한 대응방안
 - 과학활동 참여에 따른 후속조치
 - 주변국 또는 중립적 입장국과의 연계
 - 협정 체결시 국내 제도적 후속조치 필요성
 - 반대 또는 불참시 북극이사회 및 원주민 관계 재정립 방안

2. 북극해양협력 기반구축

❖ 주요 내용

- 북극권의 주요이슈가 육상오염 및 원주민 이슈에서 해양 중심(주로 해양보호 및 해양생물자원 보전)으로 이전해 가는 경향
 - 2011구조구난협정, 2013유류오염협정, 2015해양협력TF 구성 등
- 미국 주도로 북극이사회 내에서 해양분야를 종합할 수 있는 프레임(지역해프로그램)을 추진
 - 북극해에 대한 관리 및 협력방안 논의 대폭 강화 추진
- 하지만, 북극국가간 이해가 극히 상충(해양경계, 대륙붕연장, 자원 개발 등)되고 미-러간 해양안보 이슈가 내재되어 있는 갈등 핵심요인으로 부상(최근 대러 경제제재로 더욱 갈등요인 확대) 가능성
 - 미 UNCLOS 미비준, 미-캐 해양경계 미확정, 캐-덴 도서영유권 미확정, 러시아 및 덴마크 대륙붕연장 정보제출, 캐나다 준비 중
 - 유가하락으로 인한 북극권 경제 쇠락에 대비하여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하는 경제활동 강화 전망

2. 북극해양협력 기반구축

❖ 그간의 경위

- 2015.4월 미국, AC 내에 북극해양협력TF(TFAMC) 설치
- 2015.9월 제1차 TFAMC 오슬로 개최
 - TF 의장국 : 미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SAO의장,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SAO 참석
 - 한, 프, 영, 독, EU 옵서버 참석
- 2016.2월 제2차 TFAMC 스톡홀름 개최
 - 러시아, 캐나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SAO 참석
 - 한, 독, 네, 영, EU 옵서버 참석
 - 회기간 논의를 통해 10월 SAO보고자료 초안 작성 후 논의
- 2016.5월 제3차 TFAMC 레이캬비크 개최예정
 - 옵서버 참여허용여부 미결정, 추진방안 및 보고초안 확정 예상

2. 북극해양협력 기반구축

❖ 주요 논점 및 논의제안

- 북극해에서의 지역해 프로그램 설정가능성
 - 아북극해 및 EEZ제외여부, 북극이사회와의 역할 정립 등 미해결
- 기존 AC 활동과의 중복성(예를 들면 SAO 및 각료회의 체계, PAME 북극해양전략계획, CAFF 북극생물다양성계획, AMAP 북극해양관측, SCTF 등)
- 새로운 행정절차 논의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우려
 - 미국은 새로운 북극해양위원회(Arctic Marine Commission)를 제안 하고 공해에서의 구속력 있는 구역기반 관리체계(legally-binding framework for area-based management measure) 구축을 검토, 해양장관회의 등을 새롭게 제안
 - 아이슬란드는 deputy SAO(해양전문기관 지명)를 활용하는 방안 제안
 - 러시아는 AC와의 중복, SAO역할 축소 및 북극이사회 기능약화를 근거로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
 - 원주민단체는 향후 원주민의 참여방식에 대해 의문 제기
 - 오피서버국가의 경우 참여가능성 박탈 우려

2. 북극해양협력 기반구축

The United States is grateful for the preliminary ideas for deepening Arctic marine cooperation that were offered in the course of our discussions yesterday, which we think were quite useful for focusing our discussions. In the same spirit of offering a concept for discussion, the United States proposes that the Task Force explore the merits of an “Arctic Marine Commission” along the following lines:

- The Commission’s mandate could derive from the four strategic objectives of the Arctic Marine Strategic Plan 2015-2025 .
- Based on Task Force discussions to date, which have emphasized the shared value we attach to deepening Arctic regional cooperation, involving Arctic peoples at all stages, and strengthening the Arctic Council, the Commission:
 - C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Arctic Council;
 - Comprise representatives of the eight Arctic States and six Permanent Participants.
- Commissioners could be officials with expertise in, and authority for the marine management functions in their respective States.
 - Recognizing that marine science and management functions frequently span ministries, we would anticipate that Commissioners would likewise serve a coordinating function among those ministries within their respective States on Commission matters.

We see such a commission structure within the Arctic Council as a way of enhancing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Arctic Council Working Groups, rather than a replacement.

- In particular, a commission could fill a crucial role in connecting science to policy and coordinating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marine-related policy recommendations generated by Arctic Council Working Groups.
- A Commission might likewise offer strategic direction on marine issues cutting across the mandates of multiple Working Groups.
- A Commission might also have a role in obtaining scientific inputs of interest to one or more Working Groups.

While we believe a commission structure along these lines would substantially enhance our marine cooperation, the structure could be added to over time, to address needs as they arise.

- For example, the Arctic States could decide to bolster the commission’s coordinating role by negotiating and concluding a legally-binding framework for area-based management measures in high seas areas.
- The structure could likewise be employed to convene and/or support occasional meetings at the marine management ministerial level as proposed yesterday, as the need arises.

3. 북극협력주간(APW) 및 PAME 전문가 세미나

❖ 주요 내용

-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추진하는 북극행사를 체계적으로 종합화하여 대표브랜드화 추진
 - 기존의 북극관련 행사를 통합·확대 시행하여 Arctic Frontiers, Arctic Circle과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되, 북극권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주제가 되도록 추진
 - 제1회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12.5-9 기간 중 개최(2013.12.10 북극정책기본계획 국무회의 통과) 검토
- 북극이사회 PAME 해운전문가 세미나 국내개최 추진
 - PAME회의를 통해 국내 개최의사 전달
 - 해운전문가그룹(SEG) 공동의장인 미국 및 캐나다로부터 각각 자국의 SAO로부터 긍정적인 답변 확보(15년10월 SAO회의에서 새로운 절차 도입 확정)
 - 해당 의장으로부터 최종승인 확인 후 국내 관련준비 착수, APW와 연계하여 개최 추진

3. 북극협력주간(APW) 및 PAME 전문가 세미나

❖ APW 주요논점 및 논의제안

- 북극협력주간 운영 필요성 및 장기적 목표 설정
- 참가범위 및 종합계획수립, 예산확보, 사무국 지원 등
- 각 기관별 역할 및 참여방안, 개최방식
- 핀란드 북극문화전시회, 북극영화시사회 동시개최

[참고] 북극 협력 주간(안)

구분	1일차 북극, 정책의 날	2일차 북극, 과학의 날	3일차 북극, 산업의 날	4일차 북극, 산업의 날	5일차 북극, 문화의 날
오전	개회식	<Session3> 국제 북극 과학연구 협력	<Session5> 북극해 항로 협력	<Session6> 북극 수산 협력	극지체험 전시회 이벤트 및 해양박물관 특별 행사 등 개최
오후	<Session1> 북극 정책 협력 <Session2> 북극 정보 협력	<Session4> 국내 북극연구 현황 및 계획		폐회식	
사이드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지체험전시회 • 국립해양박물관 북극 전시회(북극해 연안국 협력) • PAME 전문가 세미나 개최 				

3. 북극협력주간(APW) 및 PAME 전문가 세미나

❖ PAME 전문가 세미나 주요논점 및 논의제안

- 논의주제에 대한 검토(추가익제 검토)
 - AMSP(북극해양전략계획) or AMSA(북극해운평가) to introduce overall PAME' s role in Arctic shipping
 - ASTD(북극해운교통정보) or other information sharing on Arctic shipping with Korea
 - Port Reception Facility cooperation or Polar Code implementation in Korea
 - Cooperation on Marine use mapping project with AIA
- 국내 참여 전문가 범위 및 후보자 추천
- 타 워킹그룹(CAFF, SDWG, EPPR, AMAP)의 전문가그룹과 연계한 세미나 개최 가능성 검토
 - 새로운 북극이사회 옵서버 규정에 대한 검토 필요
 - 연간 1차례 전문가 세미나 개최 추진 검토

4. 2016년 NPAC 계획

❖ 주요 내용

- 북태평양 6개국(한중일미캐러)은 세계 GDP의 43%, 세계 온실가스배출량 50%를 점유하는 거대 경제사회권으로 북극권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지역
- 2011년부터 추진해온 NPAC의 1단계 마지막 컨퍼런스 개최 예정(2016.8.10-12, 하와이 EWC)
 - 2011-2016년간 총 150편 논문 및 커멘터리 페이퍼 작성
 - 분야별 편집을 통해 텍스트북 형태의 서적으로 발간 예정
- 2016년도 논의 주제
 - 개회세션 북극정책의 중요성
 - 세션1 북극에서의 파리협정 시사점
 - 세션2 북극해의 미래, 새로운 도전과 정책대응방안
 - 세션3 북극 가스자원개발 전망
 - 종합세션 2040 북극의 미래

4. 2016년 NPAC 계획

❖ 주요 참석자

- **개회세션 북극정책의 중요성**
 - 백악관 AESC 사무총장 Mark Brzezinski
 - 캐나다, 러시아, 한국, 중국, 일본 SAO급 인사 초청 예정
- **세션1 북극에서의 파리협정 시사점**
 - 미국 SAO, ICC의장, WWF, 이코노미스트
- **세션2 북극해의 미래, 새로운 도전과 정책대응방안**
 - 수산, 해운, 관광, 해경, 원주민
- **세션3 북극 가스자원개발 전망**
 - 미 CSIS, 한 산자부, 일 IEE, 중 SIIS, 러 사회과학원, 미 NPC
- **종합세션 2040 북극의 미래 개회세션**

Thank You !

KOPRI
국립연구기관

